

2주간 수능 특별방역기간... 11일부터 고교 원격수업 전환

교육부, 대학 집중 방역 점검
수능시험장·시험실 1393개소
고사장 일반·격리·확진 분류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능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고 대학별 전형 방역 현장 점검 등 방역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오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의 안전한 시행을 위해 '수능 특별방역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에 따른 방역 완화에 대응해 수험생 대입 과정에도 방역 관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능 일주일 앞둔고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재택 치료를 받는 수험생은 공정한 시험환경 조성을 위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17일까지 수능 특별방역기간...다중이용시설·대학 등 집중 방역

교육부는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 동안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12일까지는 대학별 전형을 앞둔 대학에 대한 집중 방역 점검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대학별 자체 방역

계획과 사전 준비 계획 등을 확인하는 한편, 수능 당일 대학가 주변 방역 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수험생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도 집중 방역 점검 대상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험생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320개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관

계부처 및 시·군·구와 협력해 PC방, 노래방,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교육부는 그간 수험생의 안전한 수능 응시를 위한 방역 관리 대책을 준비해 왔다.

지난 7월 수험생을 대상으로 조기 백신접종을 실시했으며, 확진 및 밀접 접촉 등 상황에 따라 ▲일반시험장 ▲별도 시험장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등 유형별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과 시험실을 확보했다.

10월27일 기준 교육부가 확보한 수능 시험장·시험실 현황은 ▲일반시험장 1251개소 ▲별도 시험장 112개소(620개 시험실) ▲병원·생활치료센터 30개소 244명상(병원 28·생활치료센터 2개소) 등 총 1393개소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전체(수험생)확진자가 작년보다 증가하는 추세"라며 "수능 전까지 지속해서 확진자, 격리 발생상황을 모니터링해 돌발상황이 생길 경우 별도 시험장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 한국교육과정

평가원과 수능 3주 전인 지난달 28일부터 공동 상황반을 구성해 수험생 확진자·격리자 발생상황을 일별로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전까지 산발적 감염이 증가할 경우 수용 가능성과 추가 병상 확보 조치, 시험장 환경 조성 등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진행할 방침이다.

◆11일부터 전국 고교 원격수업 전환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는 11일부터는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10월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에 따른 조치로 수험생과 감독관을 보호하고, 시험장별로 필요한 사전 준비를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 11일 이전이라도 사·도가 자체적으로 필요시 각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수험생은 일반·격리·확진으로 분류돼 각각 배정된 고사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일반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시험장, 격리 수험생은 별도 고사장, 확진 수험생은 사전에 지정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재택 치료를 받는 수험생들도 공정한 시험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내 시험장을 배정받게 된다.

확진 또는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수험생들은 수능 2주 전부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해당 시설에 확진 사실을 알리면 수험생 지정 병상에 우선 배정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 가족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수"라며 "가족의 경우 수능 전까지 회식·모임, 경조사, 합격 기원 행사 등 외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수험생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 모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 당국은 수능 당일 전후를 기점으로 확진이 판정될 경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능 전인 17일 전국 보건소 운영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험생은 수능 전날 PCR 검사를 받을 경우 당일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이라도 검사 결과가 공동 상황반에 전달되고 이후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배정받게 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행정절차 정상화... 8만호 주택 공급 인하대,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와 협약

각종 심의·인허가 신속히 처리
주택난·전세난 일부 해소 기대

서울시는 지난 5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을 발표한 후 각종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8만호 주택 공급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시가 공급절차를 진행 중인 약 8만호 물량의 진행 단계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 1만7000호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8000호 ▲착공 및 준공 1만7000호다.

먼저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뉴시스

과 정비구역지정 고시 2건을 통해 1만7000여세대의 정비사업 계획을 통과시켰다. 대표적으로 한남5구역 2555세

대, 개포우성7차아파트 1234세대, 전농구역 1122세대, 신길음구역 855세대가 있다. /김현정 기자 hjk1@

경기지역 어촌마을 특화 추진

인하대학교 경기씨그라트센터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와 지난 3일 '경기지역 어촌마을 특화 추진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경기씨그라트센터와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지역 바다 환경의 과학적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어촌마을을 특화하고 역량강화를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양 기관은 어촌의 잠재자원과 활용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어촌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수산물 관리기술 보급을 위한 패류 복합축양시



우승범 인하대 경기씨그라트센터장(오른쪽)과 정재훈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장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하대

설 및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씨그라트센터에서 개발한 복합축양 시설을 경기 화성 제부리어촌계에 보급했다. 축양시설은 바지락 생존에 필요한 먹이와 용존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유속 순환을 통해 해감률을 높임으로써 바지락의 효율적 보관과 노동력 투입의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현진 기자

김영수 대표, 인천대에 1000만원 기부

(주백석개발)

제2도서관 시설확충기금 기탁

인천대학교는 김영수 (주)백석개발 대표가 지난 2일 (재)인천대학교발전기금에 제2도서관 시설확충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발전기금식에는 박종태 총장과 김영수 (주)백석개발 대표, 이호철 대외협력부총장, 이기동 경영대학장, 이현구 (주)대림시스템 대표, 이규연 (주)씨코리아 회장, 송인석 (주)영진GLS 대표, 김광석 동북아물류대학원 총동문회장, 현대자동차 송도지점 정재훈 팀장이 참석했다.

김영수 대표는 인천대 경영대학원 CEO과정 출신으로, 그간 인천대를 후원해온 동문 중 한명이다. /이현진 기자



김영수 백석개발 대표(왼쪽)가 박종태 총장 겸 발전기금 이사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대

인천대는 2021년 제2도서관을 착공해 2022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으며, 제2도서관은 창업·IT도서관으로 글로벌 아시아 전문 연구실비, 창업 전용 공간, 첨단 ICT설비를 갖춘 학생 중심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연세대 미래교육원

신한류 메타버스 최고위 과정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이 메타버스 아바타기업 (주)캘럭시코퍼레이션, (사)창의공학연구소와 손잡고 국내 최초로 '신한류 메타버스 최고위 과정'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연세대 신한류 메타버스 최고위 과정'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한류 5.0시대를 맞아 글로벌 영향력 확산을 꿈꾸는 전문 경영인을 위한 심화과정이다. 메타버스 플랫폼과 한류의 시너지를 통한 글로벌 문화콘텐츠 비즈니스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24일 출범하는 제1기 과정은 14주 동안 28개의 강의로 꾸려진다. /이현진 기자

원광디지털대 '2021 WDU 약선조리대회'

관련 분야 인재 발굴

원광디지털대학교 웰빙문화대학원은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2021 WDU 약선조리대회' 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WDU 약선조리대회'는 약선(藥膳)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관련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2015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약선 치유식 밀키트'다. 한식·중식·양식·일식 등 분야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인원 제한이 없는 팀으로 참가 가능하다. 이번 대회는 제출한 작품설명서 및

조리영상으로만 심사를 진행하며 제안 주제와의 적합성, 작품성, 독창성, 활용성 등의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시상은 최우수상(100만원), 우수상(50만원), 장려상(20만원) 부문으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웰빙문화대학원 등록금 장학증서도 수여된다.

접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이메일로 참가신청서와 작품설명서, 조리영상을 보내면 된다. 작품설명서에는 ▲메뉴소개 ▲효능 ▲레시피 ▲조리사진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조리영상은 500MB 이하로 제작된 5분 이내의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단, 작품 수는 개인 또는 팀 구성과 상관없이 총 1개로 제한한다. /이현진 기자